

영화여성위원회

영화여성위원회
2013 스무살의 페미니즘



일상적인 그러나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

보랏빛 함기로온 여워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문관 218호 / 0233271-4308 / catalk@naver.com

목차

4	들어가는 글	하다
6	그림	레기
8	상처와의 조우	방울
15	잊혀졌던 나날들	하다
20	자기계발서는 폭력이다	빨강
25	정상 전시회장	하다
30	나가는 글	레기

골목 안

조은

실종된 아들의 시신을 한강에서 찾아냈다는
어머니가 가져다준
김치와 가지무침으로 밥을 먹는다
내 친구는 불행한 사람이 만든 반찬으로는
밥을 먹지 않겠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더구나 자식을 일러보지 않아서
그 아픔의 근처에도 가볼 수가 없다

웃을 줄 모르는 그녀의 가족들이
날마다 짹짹한 그림자를 끌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
그들은 골목 막다른 곳에 산다

나는 대문을 잘 열어두기 때문에
그녀는 가끔 우리 집에 와 울다가 간다
오늘처럼 친구가 와 있을 때도 있지만
얼마 전 가족을 돌이나 잃은 독신인 친구에게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멀고 낮설어 보인다

고품에 몸을 담고
가쁜 숨을 쉬며 살아온 줄 알았던 나의
송달 하나 건드리지 않고 소멸한
슬픔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들어
가는
글



마지막 연에서, 순간 숨을 급히 멈춥니다.

슬픔이 소멸되는 것이, 마치 빛을 잃고 무한한
아득함으로 수렴되고 있는 별들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슬픔들이 생겨나고 또 금세
사라져가는 거대하고 삭막한 터미널이 연상됩니다.

무력감에 몸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니, 저는 바깥의
상처도, 안의 상처도 많이 지나치며 살았나봅니다.

2013년 봄, 올해의 스무살의 페미니즘은 오랜만에 '주
재'를 들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제는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혹은 얘기함으로써 치유되
길 바라는 마음에, 쉽지 않지만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무엇을 상처로 정의하는지,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상처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몫이겠지요, 그래서
이 작은 책자에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읽는 분들께 혹은 자신 스스로에게 소리 없는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리 없는 위안을 주는 것, 그것에 더해 바로 이런 마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 이것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
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서투른 글이라, 그저 읽
는 당신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2013년 스무살의 페미니즘 <상처> 시작합니다.
올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라앉아 무게를 더하는 것

상처와의 조우_방울

지난 6개월간, 내 상처를 들여다본(ing) 이야기

나는 1개월 전부터 자취를 시작했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학교와 멀리 떨어져 사는 많은 친구들에게 자취는 한 번쯤은 고려하게 되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혹은 각자의 사정에 의해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자취는 큰 의미를 가진 하나의 '사건'이었다.

4년 남짓의 학교생활 동안 나는 왕복 4시간의 긴 통학시간을 견디며 빡빡한 일정을 견뎌냈다. 1시간 넘게 고속버스에 갇혀 서울로 내 몸을 실어 나르고, 갑갑한 공

기의 버스와 지하철에서 또 다른 1시간을 견디며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는 동안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다. 그러나 '왜 힘들어야 하지?' 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예전부터 엄마가 무서웠다.

사실 엄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느 엄마들과 다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는 누구보다 더 나서서 행동하는 당찬 아이를 기대하셨고, 중학교 때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원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곳에 취직해서 '가정환경 올바르

고' '재산도 적당히 있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한다. "졸업사진 예쁘게 찍으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 걸려온대" 호호 웃으면서 하는 말씀은 현재 내게 바라시는 엄마의 소망일 것이다.

우리 엄마는 그저 자식들에게 욕심이 많고 약간은 엄격한, 평범한 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나는 엄마가 예전부터 참 무서웠다. 엄마는 내게 당신의 소망을 투영하셨을 뿐 아니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내게 소망을 강요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내 의사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싶은 것이 참 많던 시절, 피아노를 하겠다 그림을 그리겠다 이야기만 꺼내도 엄마는 단칼에 말을 잘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나는 그 말에 대한 소소한 반항 한 번 못해보고 그대로 자라 명문인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 엄마가 날 위해 빚어놓은 내 모습이 옛날부터 자리하던 콘크리트 벽이라고 되는 마냥 부딪혀 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중학교 때까지 나는 엄마의 선의를 의심치 않았다. 머리가 좀 더 크면서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 싶었지만, '부모라면' 으레 그런 것이고, '자식이라면' 당연히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나 또한 희생해야지 싶었다.

통학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4년 내내 수원-강남-강북을 오가며 열심히 통학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엄마가 자취를 반대하셨기 때문이었다. 학교 한 번 가는데 두 시간 남짓 걸리는 통학길을 다니며 힘들다는 생각은 매일같이 했지만, 엄마가 자취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감히 자취를 하겠다고 제안조차 하지 못했다. 날 괴롭게 하는 엄마의 말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찌든 자취에 대한 발언이었다. "남자면 올라. 자취하면 여자애는 위험해. 위험한 줄만 아니, 괜히 여자애들 자취하면 생활도 문란해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 주위에 자취하는 친구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취하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다가도 갑자기 딱 삼킨 마냥 딱 들어갔다. 엄마가 내 처지를 이해해 주리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엄마에게는 단순히 자취생활이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엄마의 틀에서 벗어나 엄마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렇게 통학을 졸업 직전까지 해 왔다. 몸은 분명 고단했지만,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으므로 통학은 할 수 있었

다. 결국 나의 많은 생활패턴이 이로 인해 한정되었음에도 불만 자체를 갖지 못했다. 나 스스로 상황을 합리화한 것이다. 내게 통학은 바꿀 수 없는, 주어진 것이었다. 친구들이 '대체 통학을 왜 계속 하는 거냐'고 물으면 나의 첫 번째 대답은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였다.

자취문제는 엄마와 나 사이의 권력관계와 소통방식을 그대로 반영했다. 엄마는 내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보다 제한하는 방식으로 내 삶에 관여했다. 엄마는 나의 진로와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한 관점에 태두리를 긋고 있었다. 그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철저히 그녀의 '선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의는 내게 강압으로 다가왔고, 내가 내 상처를 발견하는 것이 늦어진 원인이 되었다. 부모자식 간 관계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엄마가 내게 지어준 틀을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쓰고 있게끔 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심리실험 중 전기충격을 받는 쥐가 스스로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해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는 것처럼, 엄마 말 잘 듣는 자랑스러운 착한 딸이라는 감투를 쓰고 내 고통조차 발견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4학년이 되어서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전까지의 나는 이미 정해진 세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잠시 정체되어 있었다. 커가며 나름대로 세상의 '진실'을 깨달아 왔음에도, 그 진실에 도전하길 주저하고 먹먹한 마음만을 안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정말 행운으로, 나의 젠더 선호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서 나를 돌아볼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우연히 찾아온 감정은 내 삶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기존의 나는 사회의 이면과 부조리함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세상은 그런 거야'라고 단정지으며 언제든지 세상에 순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내 모순은 내가 동성의,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달라지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전의 친구나 언니에게서 느꼈던 비슷한 감정들을 사춘기 시절의 치기어린 것으로 받아들였던 나의 판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니, 내 인생 전체적으로 서서히 장막이 걷히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있는 나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마의 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건 매우 작은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엄청난 편견을 떠안고 있는 세상에서, 오롯이 나로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껏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스스로

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부터 내 자신을 마주보는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엄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문제는 엄마만의 잘못이 결코 아님을 깨달았다. 오랜 역사를 통해 쌓여 온 고정관념과 정상 이데올로기. 그 수많은 '보통'이라는 것들, '일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는 사회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학습되고, 요구받는 것들이다. 엄마의 틀은 결국 사회의 틀이었다. 엄마는 그 사회적 틀에서 벗어날 때의 무서움을 딸에게 느끼고 싶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는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명문대에 합격할 만큼 똑똑했지만, 엄마보다 더 공부를 못했던 삼촌의 대학진학 때문에 결국 대학에 가지 못했다. 매우 가난한 집의 남자와 결혼한 엄마는 내가 태어난 이후 내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엄마의 인생은 희생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희생은 우리를 대부분의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칸에서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희생의 모습이

있다. 희생을 위한 희생. 이것은 나에게서는 벗어나기 힘든 굴레와도 같았다. 엄마는 엄마가 가족에게 받았던 제약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했다. 그렇기에 내가 공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엄마의 희생은 또다른 나의 희생으로 다가왔다. 엄마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 성공을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 또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것을 모두 거부당했으니까.

하지만 어영부영 엄마의 틀 속에서 자라오는 동안, 내가 하는 행동의 중심에는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닐 때, 심지어 통학하는 이유조차 '엄마 때문에'라고 대답하는 내 자신을 깨달았다. 나 자신이 너무도 바보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결국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제약했던 엄마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나는 '물리적·정신적 독립'을 원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취였다.

나는 자취를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견디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발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

다. 나의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취를 외쳤던 건 아니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나 자신을 벗어나고 싶어, 일상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했다. 집에 조금씩 늦게 들어가거나, 의존적인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해 엄마를 멀리하거나 했다. 엄마도 내 변화를 점점 눈치채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 도저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어떤 날이 있었다. 외박을 하겠다는 내 말에 엄마는 귀신처럼 화를 내셨다. 통보식의 외박은 나도 물론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지만, 엄마가 나에게 화내는 것은 내가 변화하는 것 자체에 있었다. 그 때의 나는 좀 서툴러서, 엄마에게 내가 느끼는 압박감을 그대로 말했다.

"엄마는 그냥 나를 엄마 대용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나에게 엄마가 못한 것들을 실현시키려는 거 아니냐고"

직설적인 내 말에 분명히 엄마는 상처받았을 거다. 결과적으로 내가 희생되었다고 해도, 엄마에게는 악의가 없었으니까. 물론 내가 엄마 탓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소통방식'이다. 엄마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식에게 그 기준을 강요하는 엄마의 독선적 태도가 나는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나는 엄마에게 오해를 품어왔기도 했다. 엄마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날 위한 것이었다는, 문제는 겉껍이 쌓아올려진 수많은 역사와 사회적 구조를 통해 지어진 사회적 틀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곧 다가올 졸업, '나 자신'을 모르겠다는 답답함과 무력감, 가족간의 어그러진 관계, 이것들을 껴안고 나는 겨울 내내 휘청거렸다. 나는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깨달았고, 그 원인을 나름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는 상처와 만나고 있었다. 스스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엄마가 나에게 했던 그 많은 강압적인 태도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다. 동시에 끊임없이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의심했다. 내가 엄마 탓을 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건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대해 확신을 내린 후에 나는 '자취'라는 방식으로 상처를 극복하려고 했고,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갑자기 변화한 딸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엄마와 마주해야 했으며, 아무 의문 없이 취업준비에 뛰어들 수 있었음에

도 나는 예전에 못한 '나'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내 나'이, 내 상황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나 스스로를 어려움에 빠트린 걸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박되는 삶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싶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가족 때문에' '사회에서는 으레 그러하니까'라는 이유로 순응하지 않고, '나를 위해' 행동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에게 여성주의가 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내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여성주의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나 그대로 인정해주는 관점은 여성주의라고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갖가지 이유를 들며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 끄덕이며 손을 잡고 같이 생각해주는 것. 네가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부조리한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였다. 엄마와 나와의 관계

로 인해 상처받은 나 자신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것. 엄마가 나에게 틀지운 것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정상을 추구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함으로써 이를 모를 감정에 힘겨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에 순응하거나 혹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나처럼 책상에 앉아 몇 자를 타닥대면서 불만을 쏟아내거나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였지만.1)

확실한 건, 여성주의는 내 상처를 직면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처는 흉터가 남고, 흉터의 외관을 없애도 기억의 심연에는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똑바로 마주본다면 어떨까. 좀 흉측하고 징그러운 형태일지라도 상처 하나 없는 예쁜 모습의 거짓된 나로 포장하지 말고 '실제의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물론 상처받은 나와 마주하는 것은

1) 필자는 이 행동들에서 어떤 것도 우위를 두지 않음을 밝힌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먼 후자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한다. 나 자체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강요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이 그렇다.

괴로운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자신을 속이고 다소 답답한 마음을 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네 자신을 보세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것은 사실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이며, 인생을 해석하는 나름의 방법인 것이지만, 모든 생각의 핵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주의든, 혹은 그 반대의 이야기든 일단 오롯이 나를 받아들이고 날 위한 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²⁾

몇 달 간의 사소한 투쟁으로 나는 지금 혼자의 살림을 서울 한 켠에 꾸리게 되었다. 물론 취업준비라는 명목이 붙었기 때문에 내 투쟁은 ing이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란 끊임없이 매마르고 덧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와 만나는 것 또한 ing이다. 저 ing라는 딱지는 아마 평생 떼어지지 않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나를 위해 사는 느낌이라서 조금은 괴로워도 전반적

2) 하지만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위한 것은 남을 위한 것도 된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성주의를 한다. 내게 있어 여성주의는 결국 휴머니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 보니, 나는 잘 하고 있는 거겠지. 자전적 이야기가 열토당토 않는 조언처럼 되었어도 이것이 읽히면서 작은 공감과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 모두들 나를 꼭 껴안고 사랑해 봐요. 상처마저도.

잊혀졌던 나날들 허다

부제 : 이 죽일 놈의 응원상

중학교 3학년, 체육 대회 날 우리 반이 응원상을 탔다. 반장인 나는 상을 수상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간다. 상을 받고 단상을 내려온다.

이게 전부였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누군가 축하거렸던 것도 아니다. 상을 받기 위해 올라갔고, 상을 받고, 내려왔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왜 이 찰나의 기억이 이리도 내겐 생생할까?

그 시절 나는 모범생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범생이 그러하리라 생각하는데, 모범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었다. 어느 사이엔가 모범생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방법을 잊고 말았고, 모범생으로 살 수밖에 없

었다. 나는 '모범생'으로서 존재했을 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존재했어야 했기에, 이러한 괴리로부터 오는 이질감이 나를 항상 감싸고 있었다. 나를 모범생으로 인지하고, 나를 모범생으로 몰아넣는 주위의 시선들은 마치 여름의 불쾌한 습기같이 내게 둘러붙어 있었다. 또,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선들을 내면화하게 되었고, 혼자 있을 때조차 나의 시선을 의식했다. 타인의 시선들도 싫지만, 그런 시선에 더 안전해져서 수동적이게 되는 내가 더 미웠고, 이렇게 스스로를 못 견뎌하고 답답해하고 있음을 다른 이들이 알아챌까 봐 한 번 더 움츠러드는 내가 참 형편없는 것 같았다. 어떤 행동을 하든, 혹은 하지 않든 내부·외부의 시선이 의식되었다. 나를 '공부밖에 모르는 요령 없는 답답이'로 보는 시선은

나를 더더욱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체육대회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다른 반 반장들이 본인 반 친구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상품을 흔들며 자랑하고 좀 까분다 하는 반장들은 오버해서 환호하기도 할 때, 나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모범생스런 표정으로 예의 바르게 상을 받았다. 내 뒷모습이 참 바보스런 범생이 같을 것 같아서 내 뒷모습을 종이를 부-욱 찢듯이 찢어 버리고 싶었다. 체육대회라고 안에 흰 티를 받쳐입거나, 소매를 결거나, 체육복 바지를 한 쪽만 말아 올리거나, 목에 손수건을 매거나, 머리를 땀거나 하는, 기본 옷을 조금 리폼해서 입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³⁾, 어정쩡한 크기의 반티만 걸쳐 입고, 머리를 낮게 내려 묶었던 내 뒷모습이 얼마나 '찌질이' 같고 '쭉구리' 같았을까. 내 뒷모습을 오히려 내가 더 건디기 힘들었다. 이 시절에는 내 모습을 찢고 싶어 몸이 간질간질한 느낌과 (나를 답답한 사람으로 볼 것만 같은) 주위의 시선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3) 그리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다른 친구들의 발랄한 모습들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내가 나의 과거들을 모두 놓아버린 채 살았던 것은 이러한 과거의 시선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변했을 때, 문득 깨달아보니 내게 '과거의 나'는 지워져 있었다. 특히 대학 진학 후 여성주의를 접하고는 더욱 그랬다. 여성주의는 나의 몸, 나의 정체성에, 나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이것들을 긍정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꾸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전까지의 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나의 욕구·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외부의 인위적인 욕구와 기대에만 부응했다고 생각되는 과거들을 모조리 부정해버렸던 것이다. 마치 여성주의를 접하기 전까지의 나는 주변의 욕구와 조종에만 응하며 산 껌대기같은 사람이라, 주체적으로 쌓아온 바들이 아예 없었기라도 한 것처럼, 설령 과거의 내가 주위의 압박에 크게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내 고유의 정체성들이 많이 숨어있었다고 쳐도, 분명 나의 성향·기호·개성은 분명 미약하게나마 존재했을텐데 말이다. 오히려 그 시점을 계기로 틈새에 갇힌 채 구출되길 기다리는 내 쭉굴쭉굴해진 개별적 정체성들을 발굴하며 나를 긍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도리어 반대로 역주행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역주행의 과정을 거치며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고 나서는, 어린 내가 철저히 대상화되고 말았다. 중3 체육대회 날의 기억, 나를 경멸하게 하는 친구들의 말, 나를 답답해하는 것 같은 엄마의 태도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과거의 날카로운 기억들이 동동 떠다녔을 뿐, 과거의 나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이었다. 내가 나에게 의해 외면당했다.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고, 아니 일방적으로 과거가 단절되어 어딘가로 떠내려가니 나는 나를 밑바닥부터 다시 알아가야 했고, 나에게 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아야 했다.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나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에 나의 기반, 나의 뼈대가 없어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정착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의미이다. 외부의 것들에 치이고 소진될 때 마지막 보루로서 기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다는 것이다. 정착할 곳이 없는 채로 다시 시작하는 리셋의 시점에 한참이나 머물면서 나는 막막함과 압박감에 시달리곤 했다. 나의 과거들과 뿌리들을 확인하게 해주는 요소, 예컨대 가족·자라온 동네·고향 친구·오래 다닌 상점들이 많은 고향에서는 그럭저럭 지낼

만했지만, 모든 것들이 박탈된 서울에서는 흔들림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단절이 야기한 고립감에 종종 빠져들곤 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라 나는 이런 흔들림이 최근에 와서는 꽤나 해소된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이렇게 위태로운 역주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와 다를 없었구나! 과거에도 나는 나였구나!'라고 (당연한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경험을 함으로써, 역으로 내가 그때까지도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단절시켜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처음으로 '긍정'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부정하고 있었음'이 반증된 것이다. 바로 오랜만에 고등학생 때 활동했던 동아리 카페에 들어가 이것 저것 구경하다가, 지금의 나의 모습과 다름없는 몇 년 전의 나의 흔적들을 보게 된 것이다. 예컨대 맞춤법과 글의 정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정돈된 것과 표를 좋아하고, 가끔은 오글쎄운 글들도 막 써지르고, 졸업 후에도 후배들에게 오래 정을 주거나, 사람들을 꼼꼼히 챙기려 하는 것들, 이 작은 흔적들이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내게도 나의 고유한 성질들,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을 오랜만에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 흔적들을 발견함으로써 깨달았기에 어찌 보면 사소한 계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깨달음이 사소한 부분에서 온 만큼, 내가 작은 부분까지도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내 특질들 중 대부분은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위적으로까지 과거를 분리시키려 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서있는 '연장선'을 외면하고 지냈을까. 싶다. 그만큼 부정하고픈 과거가 많았던 걸까. 아니면 현재를 안기에도 급급해 과거를 포기했던 걸까. 따지고 보면 과거의 나도 잘못된 것은 없는데, 뒷모습을 찢고 싶었다니, 나로부터 참 오랫동안이나 미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아가 꾸준히 과거를 곱씹어보고 돌아보려는 노력을 통해, 여성주의를 모르고 그래서 지금보다 덜 주체적으로 살았던 과거든, 여성주의를 알고 나를 주체적이게 (그래서 때로는 더 힘들게)사는 현재든, 그 긴 시기를 관통하는 '뼈대'가 있었던 것을 깨달고 과거와 현재의 나 사이에 있던 단절감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었다.

었다. 마침 요즘에 부쩍 과거의 흔적들로부터 위안받는 일들이 있었다. 작년에 여행가서 자금심이 높아졌을 때 폰에 짧게 남긴 메모, 차분한 마음으로 몇 달 전 단골 카페 낙서장에 기록했던 글귀, 바닥쳤을 때 휘갈겨 쓴 일기... 여리고 약한데도 어찌 어찌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통과해온 나에게, 지금 내게 큰 위안이 되는 기록을 남겨준 과거의 나들에게 고마워할 일들이 생기면서, 과거의 나와 오랜만에 화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 영화에서 나왔던, 장년층이 된 주인공이 상상 속에서 실연의 상처로 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조용히 마주하고 토닥 토닥해주던 장면이 생각난다. 나는 응원상을 받으려 복잡한 심경(...)으로 단상에 오르던 그 애 곁에 다가갈 것이다. 보잘 것 없어 보일까 봐 등 뒤를 의식하고 있을 아이를 뒤에서 단단히 감싸안을 것이다. 그 애의 팔을 대신 들고서는 더 크게 환호할 것이다. 이상한 드립을 치든 해서 그 애를 웃겨줄 것이다. 그 아이가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도, 자신을 검열하지도 않으면서 크게 웃을 수밖에 없도록.

4) 이 죽일놈의 응원상...

Outro

요즈음 시간들을 마다 마다 곱씹으며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순적이진 않은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진정으로 동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나의 진짜 뜻과 욕구에 귀기울이고자 노력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 '지금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다보니 - 놓치는 것들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 얘기했듯, 과거를 놓아버린다거나 하는 것들, 현재의 시간들을 책임감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지긋이 밟는 신중함에, 지나간 시간들은 품어낼 수 있는 여유와 관용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사뭇거리는 발걸음을 가질 수 있기를.

자기계발서는 폭력이다 빨강



<힐링 코드>,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박코치의 독설>, <언니의 독설> 등... 텔레비전을 틀어도 힐링, 서점가에도 힐링. 한때는 전면적으로 '긍정의 힘'을 설파하던 분위기가 강했는데 요즘은 힐링 속에, 또 가장 최근에는 '독설' 속에 긍정 이데올로기를 섞은 책이 많이 나온다. 이들 책들은 제목만 약간 다를 뿐 모두 '성공한 멘토'들이 나와서 개인적인 소유를 늘리는 비법들을 전수해준다. 그 방법은 독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힐링일 수도 있고, 게으른 독자에게 내리쬐는 독설일 수도 있다.

자기계발서들은 언뜻 보기에 매우 냉철하게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첫 장부터 책을 읽고 있는 내가 얼마나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는데 마음을 쏟으며

인간관계를 망치고 있는지 꼬집는다. 또한 나의 부정적 생각의 결과로 형성된 불행하고 힘든 나의 삶에 공감하는 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비판적인 생각들, 사소한 게으른 습관들을 변화시키라고 재촉한다. 훌륭한 멘토들이 얼마나 훌륭한 생활 습관과 낙천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당장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호언한다. 지금의 나는 자기계발서들이 팔고 있는 이러한 긍정 치료법에 더 이상 위로 받지 않지만, 한때는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판단, 명쾌한 해결책 등에 매우 감명받았고 그들의 교시대로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보리라 굳게 다짐한 적도 여러 번이다.

그 중 나를 가장 때로시켰던 책은 <시크릿>이다. 한때 자기계발서 시장을 휩쓸었던 이 책은 그 전까지 긍정 이데올로기를 열심히 설파하던 다른 책들의 방법들을 적당히 끌어오면서 좀 더 기복산양적인 요소를 가미한 책이다. 그 요지는 이렇다. '우주는 나에게 우호적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살아라!', '마당이 있는 넓은 2층집이 갖고 싶다고 간절히 바란다면, 얼마 후 당신은 그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당신이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그 즉시 이루어진다.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간절함이 부족한 탓이다.' 이 현대판 기적 모음집에는 갖가지 성공사례가 실린다. 길가의 간판도 제대로 읽을 수 없던 사람이 이 책을 접한 뒤 눈이 좋아지길 간절히 기도했더니 3일만에 시력이 좋아졌다는 등(고도근시인 나는 이 부분에 특히나 매료됐다). 나는 현대판 예수의 재림을 열거해놓은 듯한 이 책에 나는 꼭 빠졌다.

한동안 <시크릿>은 내 삶의 신조였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나는 머릿속으로 그것을 찾는 상상을 했고, 매일 밤 부모님이(당시 나는 미성년자라 복권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는 일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며, 안경을 벗으면 한 뼘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 고도근시에서 탈출하는 상상을 끊임없이 했다. 그러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완벽하게 시크릿을 행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도 나는 계속 생활에서 책의 지침들을 행했지만 아무리 시력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상상을 해도 내 시력은 당연히게도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시력뿐만 아니라 몇 번

의 우연을 제외하고는 그 지침들은 생활에서 전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했으며,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문제들을 이해할 수도 무언가 영향을 끼쳐 바꿀 수도 없었다.

입시 스트레스, 가부장적인 아빠와의 관계, 성격이 이상한 담임, 억압적인 학교... 나는 당시 상황들 속에 파묻혀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속에서 책 한 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다.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점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한때 책과 DVD를 열성적으로 사 모으던 신자였지만 나는 어느 순간 자연스레 그로부터 멀어졌다.

생각으로 혹은 바람으로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인기 있는 자기계발서들의 단골 레퍼토리이지만, 이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 기복신앙을 향한 환상과 열망이 21세기에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잘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는 식충이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시크릿>과

같은 자기계발서를 찾았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지금도 나는 불안한 미래, 졸업하면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세상에 왜 그렇게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인간들이 있을까 하는 스트레스들을 늘상 받으며 살아간다.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없지만 나는 이제 최소한 자기계발서가 나를 치유해줄 수 없다는 것은 깨달았다. 나를 둘러싼 사회의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내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내 안에서만 긍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고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고민과 실천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의 말들이나 멘토의 독설이 들어있는 자기계발서로 자신을 치유하고 싶어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긍정의 힘으로 다잡거나, 사회생활을 잘 하거나 꿈을 찾고 싶어한다. 자기계발서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 돈을 번다. 그러나 자기계발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 20대의 경우 88만원 세대, 삼포세대같은 종류의 문제들을 건드리는 책 하지만 결국에

는 개인적 소유를 많이 쌓은 사람들을 멘토로 압제한다. 지금 겪는 문제들은 개인적 소유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본질을 가리고 개인들을 자본주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복속시킨다.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들이 가려지면서 문제는 되풀이되고 심화 될 뿐만 아니라 체제의 피해자이자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개인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정말 개인적인 상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힐링 도서들이라도 그들의 결론은 참으로 허탈할 때가 많다. 결국에는 '문제는 너의 마음에 있으니 네 마음을 다스려라'는 간단한 말로 끝맺음된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찾는다는 것은 폭력으로 받은 상처가 있고, 상처를 준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자기계발서도 그러한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한 자들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과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했다는 무능함만 전가시킨다. 또한 자신의 삶을 긍정으로 채우고 삶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라고 강요하지만 기계 태업과 같이 부지런하고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비관적인 생각, 게으른 습관 탓으로 돌려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행위이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비열한 짓이다. 또한 설령 게으른 습관이 문제라고 해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에게 암시를 걸면서 삶을 효율적으로 살지 않으면 금세 패배자가 되어 버리는 사회는 정의로운 것인가?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종류의 패배자화이지만 동시에 자기계발서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문제이든 개인적인 문제이든 철저하게 개인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성공하지 않는 것도 다 개인의 무능함 탓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책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개인이 책이 제시한 지침들을 비판하거나 그의 무익함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기계발서가 만들어 놓은 구도 안에서 그것은 단순히 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처를 호소하고 힐링 받고 싶

어 하는 이 상황은 그 자체로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그럴수록 긍정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자기개발서들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없다. 문제의 해결과는 동 떨어진 방법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무능력자라고 또 다시 낙인찍는다. 정작 문제의 원인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면죄부를 주고 개인들에게는 가혹한 척도를 들이댄다. 나는 이런 말장난 같은 폭력이 싫고 화가 난다.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서 자기개발서를 집어 들고 저자들의 강연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는 이기주의자'나 '현대판 기복 신앙에 매달리는 멍청이'들로 매도하고 싶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반대한다.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가리면서 체제의 강자들과 붙어먹는 비열한 자들에게 화가 난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폭력들은 개인적인 소유를 쌓은 자기개발서 베스트셀러 작가·영어 강사·백만장자 등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의 개인적 소유를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의 아니라이 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폭력에 맞서 싸우려는 노력을

할 때 제거할 수 있다.

힐링이나 멘토의 조언으로 포장된 긍정이데올로기라는 마약을 절실히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개인이 이러한 마약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며, 몇몇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해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실천이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혹은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사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번뜩이는 것이 문제의 원인제공자들에게 보내는 변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작에서 뻗어 나오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기대해본다.

정상 전시회장 허다

인기리에 계속해서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이 있다. 설정은 간단하다. 우선 남자, 여자 주인공 한 명씩이 필요하다. 주인공들의 자격 조건은 단순하며, 성별 별로 다르다. 남자는 경제력이 좋으면 정명이고 여자는 어릴수록, 예쁠수록, 참할수록 오디션에 높은 점수로 붙는다. 그 외에 몇몇의 조연들과 다수의 보조 출연진들이 필요하다. 인물은 이걸로 해결. 그 다음은 공간이다. 공간은 넓고 화려할수록 좋다. 실상이 어떨든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기만 하면 된다. 아, 그런데 공간 연출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른 연극들과 무대를 공용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30분이면 연극이 끝나 버려서, 뭐 그닥. 사람과 공간이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정해진 소품들만 있으면 이 연극은 무대에 올려진다. 이 연극의 제목은 <정상 전시회장>이다.

장소는 뽕뽕웨딩홀.

봄이라 그런지 지인들 결혼식 소식이 자주 들린다. 얼마 전에 갔던 결혼식은, 올 봄 들어 두 번째였다. 물론 좋은 짝꿍을 만난 지인의 행복함에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상봉해서 좋기도 하지만, 결혼식에 다녀와서는 오랫동안 공허한 잔상이 남는다. 지난 번에는 결혼식도 인스턴트화(化)되었음을 느꼈고, 이번에는 결혼식 이후에 남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 기쁨과, 결혼식의 주인공들에 대한 축복 그 뒤에 남는 것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정상

성'들이 전시되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획득한 정상성들을 전시하는.

결혼식의 본질은 전시가 아닐까?⁵⁾ 순전히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한.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건너지는 신부의 장면을 떠올려보자. "정성스럽게 키운⁶⁾ 소중한 딸일세. 예행", "넵 장인이른. 책임지겠습니다."하는 든든한 호방함이 생각나겠지만, 그 사이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⁷⁾이 전시된다. 또, 실제 성격과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떨든 간에, 각각 씩씩한 걸음걸이와 수줍고 사뿐거리는 걸음걸이로 대표되는 웨딩홀의 신랑과 신부의 태도는 젠더 퍼포먼스에 가깝다.

예식 직전에는 영상을 틀어주었다. 바로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다. 그런데 그 축하메시지를 보

5)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하객 알바가 공공연하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렇다.

6)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도 딸을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다. 쳐도 "당신이 생각하는 '소중하게 키움'이란 건 대체 뭐냐"고 반문하겠지만, 어쩌면 결혼식의 최대 수혜자는 아버지일지도. 엄청난게 이미지 메이킹되는 그곳.

7)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라고? 그럴까?

낸 사람들은 전부 직장 동료들이었다. 왜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 나의 지인을 향한. 유니폼을 입은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그것도 자막에 직함까지 붙여서). 물론 그 중에 정말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영상 촬영 효율상 직장에서 몰아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글썽... 공적으로 축하해줄 수도 있는 사람과, 사적인 축하에 그쳐야 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는 듯했다. 마치 몇몇 행사들이 유명인들이 축하로 그 정통성을 인증하듯,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입증할 때 비로소 신랑·신부의 정상성과 행복함이 담보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 커플의 정상성·사회적 지위? 권력을 지닌 내가 입증하지요'하는 느낌이랄까. 그것의 정점은 단연 주례이다. 나이 지긋한 권력있는 남성 주례사는, 심지어 신랑·신부와 직접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신랑·신부에게 '정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수여한다. 이번에도 어찌구 회사 부사장을 역임했고 저찌구 협회의 협회장이고 또 어찌구저찌구 단체의 이사⁸⁾로 길~게 소개받은 주례는 결혼식장의 정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서서 두 남녀의 결혼을 인증했다. 저 사람이 신랑신부를 잘 알기는 할까? 사회자는 신랑신부 소개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서, 왜 주례 소개는 이렇게 길게 하나? 가득

8) 여차피 다 이런 형식이다. 내용은 중요치 않지

이나 결혼식 시간 짧아 죽겠는데, 결혼식의 최대 수혜자가 신부측 아버지라면, 사실상의 주인공은 주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허허, 봄이라 주말마다 결혼식 주례를 서느라 바쁘군"하며 자신의 입지를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겠다 싶다. 자기네들끼리 봉 뜯 권력의식을 누릴 것을 떠올리니 쓴웃음이 나온다.

예식이 거의 끝나간다. 사회자는 '신랑신부 나이가 꽤 많아서 신랑이 신부 변백 듣기 순서는 생략한다'며 얘기하고, 사람들은 가볍게 웃는다. 이에 맞추어 주위 신부 측 하객들이 "이제라도 가서 다행이야, 진짜 못 가는 줄 알았네"라고 말한다. 그렇게 결혼이 좋아요? 정말? 20~44세 비혼⁹⁾ 여성 중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3.3%에 그친다고 하던데...¹⁰⁾ 중얼거리다 보니 순식간에 예식이 끝났다. 앞 뒤로 있는 다른 예식과 텀도 매우 짧고, 리허설 할 시간도 촉박한지 실전(!)에서 진행 보조 직원들이 신랑·신부, 그리고 그들의 부모 뒤에 바짝 붙어서 이리저리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바람

9) 비혼(非婚):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을 환기시키는 미(未)혼 대신, 그런 전제에서 벗어나 그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 대안적 용어.

10) 2012 보건복지부 발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에, 정말 인스턴트같다고 생각했다. 시작도 끝도 숨가쁘다. 어쨌든 고급스러움을 돋보이게 하려 각종 보석들로 이름 붙여진 홀들이 숨가쁘게 사람들을 들어췌고 내린다. 좋아 보이는 식기에 삼각김밥을 담아 먹는 것처럼, 홀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대립되는 인스턴트적인 속내가 묘한 모순감을 느끼게 한다. 홀을 아니꼽게 보면서 나는 엄마와 뷔페로 향한다. 예식장이 때깔만 좋다는 건, 뷔페 퀄리티만으로도 입증된다. 입맛이 그리 까다로운 편이 아닌데, 이번 뷔페는 솔직히 먹을 게 거의 없었다. 생각해 보니, 오랜만에 친지들이 만나는 자리인데 왜 뷔페이지? 자리에 앉아서 오래 조근조근 할 말들이 많을텐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정신없게 웬 뷔페? 예식장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설정한 건지, 아니면 분주해 보이고 사람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노린 건지 궁금하다. 생각해 보면 웬지 생뚱맞은 뷔페의 존재처럼, 예식장의 공간과 사람들은 고급스럽고 멀쩡하고 정상적인 것을 과시하려 하지만, 그 속에 빈틈들이 너무나 많다.

뷔페에서 엄마는 이리 저리 인사를 하러 다닌다. 사람들에게 종종 나를 딸이라고 소개시켜주시기도 한다. 몇 몇 분은 "아~ 그 이대다니는 딸?"¹¹⁾이라며 아는 체를 하시기도 한다. 나는 두 달만에 화장한 얼굴에 '이대생스러운

미소'를 띠려고 노력한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잘 키운 자식들'만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성에 핵가족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을 거라 전제되는 분위기에서, '잘나가는 자식'이라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었구나. 이때, 한 사촌 오빠가 눈치 없이 '그 다음으로 시집갈 건 너네'라고 말해서 나를 정색하게 만든다. 다른 대화를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군대 얘기가 오간다. 나 때는 복무 기간이 3년이 었다느니, 넌 그나마 쉬운 데 다녀온 것이라느니,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하는 거라느니 하면서 서로가 더 높은 정상성을 지녔다며 자랑한다. 군에 복무할 일이 없으리라고 간주되는 내가 이렇게 딱하니 앉아있는데도, 그저 군대얘기 뿐, 나를 아무렇지 않게 소외시킨다. 생각해보면 나뿐만 아니라 술한 사람들이 소외된다. 군대라는 곳의 핵심은 국가의 안전 보장¹¹⁾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적인 것·취하는 것·소수자의 것들을 모조리 물개성화하고 이러한 군사주의를 사회 전반에 퍼뜨려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을 흐트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때문에 '현역'으로 '빠

릿빠릿하게' '군생활에 잘 적응한' 건장한 일부 남성 이외의 모든 이들이 차별받기 때문이다. 내 옆에서 애꿎은 종이컵만 찢고 있던, 곧 입대 예정인 성격이 암전한 사촌 동생도 '너 같은 애는 군대가서 고생 좀 할 거다'라는 얘기에 상처받았을 것이고, 공군 제대한 사촌 오빠도 '공군이 군인이냐'는 말에 위축되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모처럼의 기분 날에, 더욱이 대화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이런 때에 서로의 불행 전시에만 열 올리는 건 또 뭘지.

정상 이데올로기, 정상 범주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소수자·약자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성 전사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혼식장은 각종 정상성들이 내세워지는 만큼, 위에서 다룬 것들 이외에도 그 기반부터가 아주 많은 배제들로 점철된다. 일단, 비이성 애자들은 결혼식장에 주인공으로 설 수조차 없지 않은가? 시작부터가 이 모양이다. 그리고 소위 '결혼 적령기'의 나이이지만 비혼을 택한 이들은 하객으로 참가한 결혼식장에서 친척 어른들로부터 귀가 따갑게 '결혼은 언제 하나'는 질문을 들어야만 한다. 결혼한 어른들은 멋진 신랑, 예쁜 신부의 모습을 옆두에 두며 '넌 언제쯤...?'하는 시선을 거침없이 던진다. 오랜만에 조우한 만큼 개인

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심플하게 주고받는 안부 대화에서는, 사회적으로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여러 기준들이 단골로 등장한다. 애는 잘 컸는지, 대학은 잘 갔는지, 취업은 했는지, 어디에 취업할 것인지, 배우자 정년이 얼마 남았는지 등등. 그저 오지랖이라고 하기에는, 듣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오지랖이 아닌가. 나쁜 오지랖! 나쁜 오지랖!

남-녀 이성에 커플의 '본격 정상 범주 진입'을 축하하는 의식에, 과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해진 품의 안부를 주고 받다가 생뚱맞을 정도로 금방 사라지는 곳. 인위적임과 정상성 과시가 한데 뒤섞여 씁쓸한 끝맛을 남기는 곳.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짝궁을 만난 것과 그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를 축하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밖에 축하하지 못하나... 결혼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매우 많지만, 결혼식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아쉬움을 곱씹으며 엄마와 이리저리 인사를 하러 다닌 사이, 친척들 대부분이 홀라당 자리를 뒀다. 엄마와 나는 둘이서 데이트를 하기로 하고 친척들의 부름을 뿌리치고 나선다. 결혼 뒤꼍이 자리에 갔으면 또 얼마나 시달렸을지 생각하니 엄마의 센스가 고맙다. 모처럼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만, 결

혼식이 남긴 여러 찝찝한 잔상들과, '엄마도 나의 결혼식을 상상하셨을텐데...'하는 고민들 때문에 조금은 무겁다. 올해에 또 몇 번이나 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며 억지로 웃어야 할는지.

11) 심지어 '이대 다녀?'라는 말에 꼭 '아이구 시집은 잘가겠네~'라는 말이 뒤따르기도 한다.

12) 실제로는 '기독권총의 권력 보장'

스무살은 한참 지났지만,
여러 번의 스무살의 페미니즘을
마감하며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마다
서툴었던 내 모습들이 떠오른다.

전형적인 이야기지만- 곁을 서툰
아이가 넘어지며 곁을 배운듯이,
서툰 상처와 연결되고 그 상처는
아물어 어떠한 과정이 된다.

2013 스무 살의 페미니즘은
우리들 각자의 혹은 모두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했다.

어떠한 방식이든, 상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상처는 가끔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가끔은
자신을 알게 되기도 한다.
또한 상처들은 이유가 명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상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알게 되기도 하고,
뒤늦게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기도 하고.

혹은, 상처를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한다.

상처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나'를 구성하는 조각 중 일부이기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려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표현한다.

후기

히다

여럿이서 작업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함께 얘기나눴던 그 순간들이 참 소중한했습니다. 이제야 새로운
공을 가지게 되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울

새 번째 너를 쓰고 보낸다. 쓰고 나서 널 종종 잊어버렸지만,
이제는 잊지 않으려고 한 여백에 너를 꼭꼭 눌러 담았어. 내
스무살이 보랏빛 공간에 묻혀 물들 날까지 그 자리에 있어주었
으면!

오이

여위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한거 같아
미안해요ㅠㅠ 여위 회의할 때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직 여성주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계속 여위활동을 하며 더
잘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나 너무 아파.'라고 느껴야만 상처
라 생각했었는데, 순간순간 느꼈던 별스럽지 않은 불편한 감정
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상처였구나.'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구요! 그만큼 제가 사회의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별 고민없
이 받아들이고만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다음 스무살의 페미니
즘 책자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글을 꼭 쓰고 싶어요..^^

보랏빛 여위방은

<여성위원회>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이화여대 학부생들의 모임입니다.
나, 그리고 세상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지요.

주로 1학기에는
<스무살의 페미니즘>을 발간하고,
2학기에는 <페미니즘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일상을 여성주의로 소통하는
보랏빛 여성위원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여위방에 들어와 게서도 좋고
연락을 주셔도 좋아요.
같이 커피 마시며 재잘재잘 수다 떨고 싶어요.

학문관 218호 / 02)3277-4708
ewhalovewom@hanmail.net